

대한항공, UH-60P 중형헬기 100호기 출고

- 작전 반경 500km, 3시간 체공 등 세계 최강 기동 강습 성능 자랑

대한 항공(사장 趙亮鎬)은 10월 18일 자사 우주사업본부 김해헬기사업공장에서 정부인사, 군관계자,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, 美 시코르스키(SIKORSKY)사와 GE(제너럴일렉트릭)사 관계자,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H-60P 중형기동헬기 100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가졌다.

현재 대한항공에서 생산중인 UH-60P 헬기는 미 육군의 주력헬기인 UH-60L의 기본형상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량하여, 요인수송 및 작전지원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신형 헬기이다.

UH-60P 헬기는 완전 무장 병력 1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, 작전반경 500km와 3시간의 체공능력을 갖춘 다목적 헬기로서 동급기종중 세계 최강의 중형기동 강습헬기로 평가받고 있다.

최근 동해안에 침투한 무장공비 수색작전에서 특수부대원 및 장비수송등 신속한 작전전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천후 성능이 입증된 바 있다.

대한항공은 UH-60P 헬기 생산사업을 위해 SIKORSKY사 및 GE사로 부터 핵심부품의 제작/조립, 고난도의 시험/평가기술을 도입함으로써 2000년대 세계적인 헬기전문 생산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특히 본사업을 통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발전, 육성은 물론 나아가 고유 항공기모델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.



기념사를 하는 沈利澤 대한항공 부사장

UH-60P 헬기 생산사업은 고급기술 인력 1500여명(협력업체 500명)이 투입되고 설비 및 기술 분야에 150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항공산업의 발전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투입된 인력과 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